대한침구학회지 제23권 제5호(2006년 10월)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원 저

寒熱虛實辨證을 이용한 脾正格 적응증 고찰

최준수 · 임윤경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pleen Tonifying *Sa-Am* Acupuncture in the Diagnosis of Cold-Heat & Deficiency-Excess

Choi Joon-soo and Yim Yun-kyoung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cases for which spleen tonifying Sa-Am acupuncture was applied in 『Sa-Am-chim-gu-jeong-jeon(舍巖鍼灸正傳)』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cold-heat & deficiency-exces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pplication of spleen tonifying Sa-Am acupuncture.

Results : 1. Tonification of Spleen Sa-Am acupuncture can be used to treat heat syndromes such as deficient fire caused by collapse of the spleen qi, stagnation of evil qi or spleen yin deficiency, by way of tonifying spleen qi, activating the flow of qi and blood or harmonizing spleen yin and yang.

2. Tonification of Spleen Sa-Am acupuncture can be used to treat cold syndromes such as weakness of spleen yang by way of promoting fire to generate earth, strengthening spleen yang and raising the clear yang.

3. Tonification of Spleen Sa-Am acupuncture can be used to treat deficiency syndromes such as malnutrition or poor appetite caused by spleen deficiency by way of tonifying spleen qi.

4. Tonification of Spleen Sa-Am acupuncture can be used to treat excess syndromes such as stagnation of qi and blood, abdominal mass or toxication by way of tonifying spleen qi and promoting the flow of qi and blood.

Key words : Tonification of Spleen Sa-Am acupuncture, heat syndromes, cold syndromes, deficiency syndromes, excess syndromes

· 접수 : 2006년 7월 22일 · 수정 : 2006년 9월 6일 · 채택 : 2006년 9월 8일
· 교신저자 : 임윤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42-280-2610 E-mail : docwindy@dju.ac.kr

Ⅰ. 緖 論

舍巖鍼法은 五行의 원리를 이용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크게 正格과 勝格으로 구분하여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의 鍼法이다. 근래에 舍巖鍼法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그 운용상에 있어서의 편리함으로 인해 臨床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脾正格은 "虛則補其母 瀉其官"의 원리에 따라 火를 補하고 木을 瀉하는 처방구성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이때의 補火를 溫熱작용으로 생각하여 脾正格을 기존에 正格이 虛症과 寒症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實症, 熱症도 많은 것 같아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正格과 勝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脾正格의 체계적 해석 및 운용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辨證 근거의 필요성을 느껴 ≪舍巖鍼灸正傳≫에 언급된 脾正格 적용 病症 및 治驗例를 寒, 熱, 虛, 實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이때의 補火를 溫熱작용으로 오인함으로써 脾正格을 단지 寒證에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補火瀉木의 火는 五行의 火로 이는 脾土를 바로잡기 위하여 火를 보하는 것이므로 寒熱에서의 熱과는 다르다. ≪舍巖道人鍼灸要訣≫에서 脾正格이 적용된 病症이나 治驗例를 살펴보아도, 脾正格이 寒, 熱, 虛, 實 病證 모두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本 論

≪舍巖鍼灸正傳≫에서 脾正格이 사용된 곳은 中風門, 濕症門, 鬱門, 痰飮門, 痢疾門, 呃逆門, 嘔吐門, 嘈雜噯氣門, 積聚門, 虛損門, 霍亂門, 泄瀉門, 胃脘痛門, 脇痛門, 諸氣痛門, 痿症門, 目病門, 鼻痛門 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병증 및 치험례를 寒, 熱, 虛, 實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1. 熱症에 脾正格이 사용된 例[5)]

熱 症	見 證	療 法
中脾	땀기가 많고 몸이 더우며 黃色을 呈하는 證.	大敦 瀉 少府 補
中脾 治驗例	一女兒가 年十四五에 草野에는 惡寒을 느끼더니 문득 昏沈으로 變하여 喉中에서 때로 톱질 소리가 나며 面色이 붉고 땀기가 많은지라 처음에는 心中實證인가 疑心했었으나 알고보니 數日前 午食에 찹쌀 찬밥을 먹고 잔 그 翌日에 드디어 喘急으로 變했다 하며 때는 正이 冬節인데 未消化物數椀(주발 완)을 吐한 후에 連하여 昏沈狀을 作했다 한다. 그러므로 脾中虛로 認證하여 少府를 補하고 大敦을 瀉함으로써 곧 깨어났다.	脾中虛 少府 補 大敦 瀉
熱痢	身熱口渴, 大便急痛症을 訴한다.	脾正格
暴泄	夏月에 물을 내쏘며 煩渴, 尿赤, 面垢(얼굴이 지저분한 것), 自汗 等證을 訴하는 것이니 즉 暴泄로 脾傷이라 하였다	脾正格
肉痿	膚肉에 痛, 痲感을 상실한 證(二陣二朮에 入霞天膏證)으로 脾熱이라 하였다.	脾正格
上下眼胞如桃	눈두덩이가 복숭아같이 부은 것(눈다래끼)으로 脾病이다.	脾正格
倒睫卷毛	속눈썹이 거꾸로 눈중앙으로 들어가 눈동자를 찌르는 證으로 脾風이다.	脾正格
鼻衄	濁涕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脾傷이다.	脾正格

2. 寒症에 脾正格이 사용된 例[5)]

寒 症	見 證	療 法
濕鬱	周身關節에 流注痛을 訴하며 머리에 物件을 뒤집어 쓴 것 같고 脈이 沈澁하고도 緩하며, 陰雨時에 卽發하는 것이 특징으로 脾虛이다(滲濕湯證).	脾正格
濕鬱 治驗例	一婦人이 年三十餘에 臍上으로부터 心下에 이르기까지 脹滿과 같으며 冷氣가 부채질(扇)하는 것 같아서 이불(衾)로 휩싸도 항시 腹寒을 感覺케 되는지라 속에 있는 脹滿의 氣는 모두 脾候에 屬했으며, 寒은 虛인지라 脾正格을 用하여 完治되었다.	
	一男子가 全身에 浮腫이 나고 咳嗽가 甚한지라 듣건대 生冷物을 多食하여 滯했다 하므로 脾經正格을 쓰기 三度餘에 浮症이 빠지고 咳嗽가 漸漸 나았으니 濕鬱이었다.	
濕呃	脾胃虛寒에서 誘發되는 呃逆으로 土敗이다(理中湯證).	脾正格
中濕=內傷	生冷飮食物로 因하여 誘致된 內鬱性 濕證은 흔히 鼓脹, 浮腫 等 證을 訴한다	脾正格
中濕 治驗例	一男子가 年五十에 兩脚「曲泉」上으로부터 陰莖에 이르끼까지 左右쪽에 貫珠狀의 結核이 있고 風寒을 싫어하여 出門하지 않은지 이미 屢日이며, 때는 正히 夏末을 當한지라 濕氣가 方盛한 節氣이며, 또한 右邊이 甚하므로 少府·大都 補, 隱白·大敦 瀉하기 一次에 痛症이 그치고 痢疾이 作하더니 第三日 만에 두 가지의 症勢가 모두 掃然하더라. 그러면 兩脚流注의 濕氣가 白痢로 變하여 없어진 것일까?	脾正格

3. 虛症에 脾正格을 사용한 例[5)]

虛 症	見 證	療 法
視物不眞	똑바로 보이지 않고 둘 或은 셋으로 보이는 것	脾正格
脾虛	속이 더부룩하고 먹지를 못하며 極하면 위로 吐하고 아래로 瀉하며 살이 빠지고 四肢가 나른하며, 關節과 肩背가 아픈 증(蔘苓白朮散,天眞元證)	脾正格
吐	울컥 吐하면서도 웩웩 소리가 없는 證	脾正格
吐 治驗例	一男子가 매양 여름이면 吐, 瀉를 頻作하여 幾死之境에 이르는지라 脾經正格을 썼더니 數度에 病이 낫더라.	脾正格

4. 實證에 脾正格을 사용한 例[5)]

實 症	見 證	療 法
痞氣(脾積)	胃脘에 覆盤大의 硬物이 生起하여 四肢를 不收하며 黃疸을 發하며, 飮食이 살(肌肉)로 가지 않는 證(痞氣丸證)	脾正格
痞氣 治驗例	一男子가 年三十에 胃脘에 積이 있어 누르면 痛惡하고 二, 三月을 間隔으로 或便血을 作하는지라 脾積方을 썼더니 有效하더라. 그러면 便血은 脾病으로해서 그런 것인가?	脾積方
菜毒 治驗例	一女子가 年十餘歲에 잘못 南草田에 蔓菁을 먹고 菜毒(十二指腸蟲)이 되어 痿黃幾死之境에 到達하였더니 脾經正格으로써 見效하였다.	脾正格
	一婦人이 菜毒에 걸린 지 近十餘年에 몸이 빼빼 마르고 痿黃한지라 脾經正格을 썼더니 神效하더라.	
	一男子가 年四十에 六月糞으로 肥培한 蔬菜를 먹고 或浮或下하는지라 脾經正格을 썼더니 한 번에 病이 나았다.	

5. 기타 脾正格을 사용한 例[5)]

기 타	見 證	療 法
脾痛	錐 或은 針으로 心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것. ≪靈樞·厥病篇≫에서 말한 脾心痛이니 心痛連臍證을 指稱함이다. (訶子散, 或은 復元通氣散證)	少府·大都 補 隱白 瀉 丹田 迎
羞明怕日	밝은 것을 싫어하며 해를 못 보는 것	脾正格
左右挽痛	脾가 左右로 땅기고 아프며 消化不良이 되는 것	脾正格
思氣結	容易하게 處決하기 困難한 事情으로 因하여 深思熟考한 後에 생긴 氣結證	脾正格, 又方 間使鍼 氣海瀉
酒痰	飮酒不消證을 일으켜서 飮食이 消化되지 않으며 酸水를 嘔吐하는 證으로 脾虛이다(瑞竹堂化痰丸證).	太白·太淵 補 大敦·隱白 瀉
口噤 痰塞	입을 악물고 痰이 막혀서 목에서 톱질 소리가 나는 證으로 脾虛이다.	少府 瀉 經渠 補
嘈雜	배가 고픈 것도 같고 쓰린 것도 같아서 名狀할 수 없으며 속이 더부룩한 證으로 傷脾이다(消食淸鬱湯證).	脾正格
嘈雜 治驗例	一男子가 밥 먹고 난 조금 뒤에 먹은 것이 도로 나와 입에 가득하여 이러한 지가 벌써 屢年이라, 少府·大都 補, 大敦·隱白 瀉하였더니 一度에 낫더라.	脾正格
	一男子가 年二十餘에 항상 腹痛上衝을 患하여 飮食後 조금 있다가는 도로 吐하여 입에 가득히 물어 가지고 或은 다시 삼키며 或은 뱉어 내버리기를 五六年을 反復하더니 脾正格 一度에 病이 完差하였다.	

6. 참고: 脾勝格이 사용된 例[5)]

脾勝格	見 證	療 法
濕腫	全身이 모두 붓되, 腰로부터 足에 至하기까지 尤甚하며, 氣가 或은 急, 或은 不急하고 大便이 或은 묽고, 或은 묽지 않기도 한 것	脾勝格
濕暈	雨傷濕으로 因하여 眩暈의 症狀을 俱發하며 코가 막히고 소리가 重한 것	脾勝格
着痺	肌肉內에 千萬小蟲이 亂行하는 것 같기도 하고 或은 遍身이 淫淫蟲行하는 것 같으며 만져도 그치지 않고 긁으면 더욱 甚한 卽「痲」의 症狀과 不癢不痛하여 자기의 肌肉이 他人의 肌肉과 같아서 만져도 알지 못하고 꼬집어도 感覺을 모르는 卽「木」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	脾勝格

Ⅲ. 考 察

舍巖鍼法의 활용은 크게 正格과 勝格으로 구분되는데, 正格과 勝格은 기본적으로 ≪難經≫에서 제시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구성된다. 초기에는 明代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自經만을 이용하여 경락을 補瀉하는 방법으로 주창되었으나 그 후 張世賢의 ≪校正圖解難經≫에서 他經의 補瀉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相生관계에만 머물렀을 뿐 抑其官의 相剋관계까지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自經과 他經 모두를 補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舍巖鍼法에 이르러서이다[1)].

脾正格의 구성은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의해 自經의 火穴인 大都와 火經의 火穴인 少府를 補하고 "抑其官"의 원칙에 의해 自經의 木穴인 隱白과 木經의 木穴인 大敦을 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舍巖鍼灸正傳≫에서 脾正格이 사용된 病症과

治驗例를 寒熱虛實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1. 熱症에 대한 脾正格의 활용

中脾症은 ≪舍巖鍼灸正傳≫에 "땀기가 많고 몸이 더우며 黃色을 呈하는 症으로… 脾虛"라 하였고, "面色이 붉고 땀기가 많은지라…脾中虛이므로 大敦을 瀉하고 少府를 補하라" 하여, 그 증상이 熱證이며 그 원인이 脾虛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中脾症은 脾虛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 滯하여 食厥症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脾虛에 의한 熱證이므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를 補함으로써 그 熱을 淸解하였음을 알 수 있다.

熱痢는 ≪舍巖鍼灸正傳≫에 "身熱口渴, 大便急痛症으로 脾虛"[5]라 하여 熱痢가 脾虛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脾虛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脾氣虛로 보는 경우이다. 東垣은 ≪內外傷辨惑論≫에서 脾胃의 氣가 虛해지면 元氣의 敵인 相火(陰火)가 이를 틈타 올라오며 이 陰火가 上衝하여 飮食勞倦에 의한 제반 熱症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 경우 熱痢는 脾氣가 虛해져 陰火가 上衝하여 발생한 熱證으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引火歸源[1]함으로써 熱證을 해소한 것이다. 두 번째는 脾虛를 脾陰虛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熱痢는 脾의 陰陽均衡이 失調하여 脾陰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熱邪에 의하여 熱痢가 발생하여 脾陰이 손상된 것으로, 이에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陰을 補하고 脾의 陰陽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熱症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前者의 해석은 脾陽虛로 인한 熱痢에 脾正格으로 脾陽을 補하여 치료한 것이 되고, 後者의 해석은 脾陰虛로 인한 熱痢에 脾正格으로 脾陰을 補하여 치료한 것이 된다.

暴泄은 "夏月에 물을 내쏘며 煩渴, 尿赤, 面垢, 自汗 等 證을 訴하는 것이니 傷脾"라 하였다. 暴泄의 원인은 太陽病이 太陰病으로 전해져서 大腸이 禁固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理中湯症에 해당한다[2]. 그러나 그 증상은 煩渴, 尿赤, 自汗 등 熱症이므로 이는 虛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脾正格으로 脾를 補함으로써 脾陽虛로 유발되는 水濕의 범람과 虛熱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肉痿는 "膚肉에 痛, 痲感을 상실한 證으로 脾熱"이라 하였다. 脾의 陽氣가 四肢로 운행되고 이로 인해 津液과 血도 四肢로 공급되는데 脾의 運化에 문제가 생기면 陽氣가 불통하고 濕痰이 정체되어 四肢關節의 氣血凝滯로 인하여 손발의 저림증, 감각이상, 冷증,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1] 이를 脾熱症으로 본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脾氣不通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脾正格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上下眼胞如桃는 "눈두덩이가 복숭아같이 부은 것으로 脾病"이라 하였다. 원인은 外感風熱毒邪가 胞瞼에 客하여 또는 脾胃에 熱毒이 蘊結하거나 飮酒過多나 高浪厚味, 辛烈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熱毒이 上攻되어서 혹은 熱毒微盡으로 熱邪가 胞瞼에 蘊伏하여 나타나며 특히 小兒나 脾胃가 虛弱하거나 蘊熱이 있으면 쉽게 발생한다[3]. 이것은 托裏消毒飮 등과 비슷한 원리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氣를 補함으로써 熱毒을 몰아낸 것으로 해석된다[1].

倒睫卷毛는 "속눈썹이 거꾸로 눈중앙으로 들어가 눈동자를 찌르는 證으로 辛熱, 膏粱厚味를 多食하여 脾胃에 濕熱이 內生하여 眼瞼의 脈絡에 壅滯되어 나타나는 질환[3]이라 하였다. 脾陽이 鬱滯되어 熱이 발생한 것이므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淸陽을 上昇시켜 獨陰을 下降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淸熱작용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2].

鼻衄은 "濁涕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脾傷"이라 하였다. 脾의 昇淸作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鼻에 濁陰이 정체되어 鼻腔에 濁滯가 쌓이고 鼻淵症이 되거나 鼻痔가 생길 수 있으며, 濁陰의 정체가 오래되어 鬱熱이 발생하면 出血이 발생한다[1]. 이는 昇淸作用이 되지 않아 鬱熱症이 온 것이므로 脾正格으로 치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脾正格은 脾氣下陷으로 인한 陰火의 上衝이나 脾氣虛로 인한 虛熱에 적용하여 脾를 補함으로써 引火歸源[2] 하거나, 脾陰의 損傷에 의한 熱症에 적용하여 脾의 陰陽을 調和롭게 함으로써 熱症을 淸解하거나, 濁陰의 정체나 邪氣의 鬱滯 등에 의한 鬱熱에 적용하여 脾를 補함으로써 脾의 運化를 도와 升淸降濁하고 鬱滯된 氣血을 소통하여 鬱熱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寒症에 대한 脾正格의 활용

濕鬱은 "周身關節에 流注痛을 訴하며 머리에 物件을 뒤집어 쓴 것 같고 脈이 沈澁하고도 緩하며, 陰雨時에 卽發하는 것이 특징으로 脾虛"라고 하였으며, 濕鬱치험예에서도 "臍上으로부터 心下에 이르기까지 脹滿과 같으며 冷氣가 부채질(扇)하는 것 같아

서 이불(衾)로 휩싸도 항시 腹寒을 感覺케 되는 지라 속에 있는 脹滿의 氣는 모두 脾候에 屬했으며, 寒은 虛인지라 脾正格을 사용하였다"[5]고 하였다. 이는 脾陽의 쇠약으로 인한 寒症으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陽을 補함으로써 濕을 化하고 鬱을 解한 것으로 해석된다.

濕呃은 "脾胃虛寒에서 誘發되는 呃逆으로 土敗"[5]라 하였다. 이는 脾胃虛寒으로 인한 것으로 역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陽을 강화시키고 또한 淸陽을 상달시키는 기능을 통해 寒症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濕(內傷)은 "生冷飮食物로 因하여 誘致된 內鬱性 濕證은 흔히는 鼓脹, 浮腫 等證을 訴한다"[5]고 하였으며, 中濕치험례에서도 "… 風寒을 싫어하여 出門하지 않은지 이미 屢日이며… 또한 右邊이 甚하므로 少府·大都 補, 隱白·大敦을 瀉하였다"[5]고 하였다. 이는 脾陽의 쇠약으로 인해 水濕의 정체를 초래하여 나타난 寒症으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陽을 補함으로써 溫暖化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脾正格 적응증에 나타나는 寒症은 脾陽의 쇠약으로 인한 것으로 脾正格을 사용함으로써 益火生土의 원리에 의해 火經의 火穴인 少府를 補하고 脾經의 火穴인 大都를 취하여 火生土의 작용에 의해 脾陽을 강화시키고, 또한 淸陽을 상달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火를 補하여 寒症을 치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특히 火經의 火穴인 少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虛症에 대한 脾正格의 활용

視物不眞은 "똑바로 보이지 않고 둘 或은 셋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腎精과 肝血의 정상적인 공급하에서 淸陽이 上昇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五官으로의 淸陽 上昇은 脾의 升氣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1] 脾虛로 인해 淸陽이 上昇하지 못하여 눈에 원활한 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視物不眞 등의 시력이상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脾正格을 통해 淸陽을 上昇시켜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사료된다.

脾虛는 "속이 더부룩하고 먹지를 못하며 極하면 위로 吐하고 아래로 瀉하며 살이 빠지고 四肢가 나른하며, 關節과 肩背가 아픈 중으로 脾虛"[5]라고 하였다. 이는 脾臟이 四肢에 中焦之氣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생긴 증상이므로 脾正格으로 치료하기에 적증이다.

吐는 "吐는 … 나오는 것은 있고 소리는 없으니 혈병이다… 근원을 찾아보면, 모두 脾氣가 허약하거나 寒氣가 胃에 침입하거나 음식에 상했기 때문이다"[4]라고 하였다. 이는 脾氣가 虛弱하여 運化作用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火生土의 기전으로 脾氣를 건강하게 하여 치료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脾正格 적응증에 나타나는 虛症은 脾氣가 虛弱하여 運化작용이 失調되거나 營養供給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들로, 火生土의 기전으로 脾氣를 보함으로써 脾를 건강하게 하여 虛症을 치료한 것으로 사료된다.

4. 實症에 대한 脾正格의 활용

痞氣(脾積)은 "胃脘에 覆盤大의 硬物이 生起하여 四肢를 不收하며 黃疸을 發하며, 飮食이 살(肌肉)로 가지 않는 證"[5]이라 하였다. 이것은 腹部에 有形의 덩어리가 생긴 病으로 실질적인 병변이므로 實症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積聚의 발생원인은 正氣不足으로 인한 氣血循環 不通이므로 積聚의 치료는 正氣를 키우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痞氣(脾積)의 증상은 實證에 속하나 원인은 虛로 인한 것이므로 本虛標實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脾正格을 사용한 것은 첫째, 積聚의 발생 부위가 중앙부이기 때문에 中央土의 관점에서 脾를 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脾經의 생리작용이 運化作用이므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脾의 運化작용을 강화함으로써 積聚를 解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1].

菜毒은 ≪舍巖鍼灸正傳≫에 "一女子가 年十餘歲에 잘못 南草田에 蔓菁을 먹고 菜毒(十二指腸蟲)이 되어… 脾經正格으로써 見效하였다. 一婦人이 菜毒에 걸린 지 近十餘年에 몸이 빼빼 마르고 痿黃한지라 脾經正格을 써더니 神效하더라. 一男子가 年四十에… 蔬菜를 먹고 或浮或下하는지라 脾經正格을 썼더니 한 번에 病이 나았다"[5]라 하였다. 이는 일종의 中毒 증상으로 實症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菜毒에 걸린 지 近十餘年에 몸이 빼빼 마르고 痿黃하다"는 등 만성 虛證을 보이므로 本虛標實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托裏消毒飮의 경우처럼 原氣를 補하여 邪氣를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脾正格 적응증에 나타나는 實症은 유형의 덩어리가 생긴 痞氣(脾積)나 中毒 증상 등인데, 그 발생원인은 氣滯血瘀이거나 毒物의 섭취이지만 그 바탕을 正氣不足에 두고 있으므로, 脾正格을 사용하여 正氣를 돋우고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實邪를 제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舍巖鍼灸正傳≫에서는 嘈雜, 脾痛, 羞明怕日, 左右挽痛, 思氣結, 酒痰, 口噤, 痰塞 등의 증상들에 대하여 脾正格을 사용하였다.

한편, 濕鬱, 中濕 등의 濕症에는 脾正格이 사용된 반면 濕腫, 濕暈, 着痺 등에는 脾勝格이 사용되었다. 즉 같은 濕症이라 할지라도 脾虛가 바탕이 되면 脾正格을 사용하고, 脾虛가 없이 濕勝한 증상만 있을 경우에는 脾勝格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舍巖鍼灸正傳≫에서 脾正格이 적용된 病症이나 治驗例를 살펴보면, 脾正格은 土를 바로잡기 위하여 火를 補하고 木을 瀉하는 방법으로 寒熱虛實 病症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즉 脾正格에서 虛則補其母의 원리에 의해 火穴을 補하는 것은 寒熱에서의 熱의 개념이 아니고 五行上의 火로 이는 脾土를 바로잡기 위하여 火를 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脾虛에 바탕을 둔 熱症이나 實症 등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Ⅳ. 結 論

≪舍巖鍼灸正傳≫에서 脾正格이 사용된 병증과 임상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脾正格은 脾氣下陷으로 인한 陰火의 上衝이나, 邪氣의 鬱滯에 의한 鬱熱이나, 脾陰의 損傷에 의한 熱症 등에 적용하여, 脾陽을 補함으로써 引火歸源하거나, 脾의 運化를 도와 氣血을 소통하거나, 脾의 陰陽을 調和롭게 함으로써 熱症을 淸解할 수 있다.
2. 脾正格은 脾陽虛로 인한 寒證에 적용하여 淸陽을 上達하고 脾陽을 扶揚함으로써 寒症을 치료할 수 있다.
3. 脾正格은 脾虛로 인한 營養不足이나 脾氣虛로 인한 水濕停滯 등의 虛症에 적용하여 脾를 强化하고 虛症을 緩解할 수 있다.
4. 脾正格은 邪氣의 鬱滯나 氣滯血瘀, 積聚, 中毒 등의 實症에 적용하여 脾氣를 補하고 氣血을 疏通함으로써 實症을 解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脾正格은 脾虛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寒熱虛實 각 症狀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Ⅴ. 參考文獻

1. 김관우. 舍巖鍼法 隨想錄. 대전 : 초락당. 2006 : 51, 89, 94, 101, 105, 106, 107.
2. 전국 비계내과학 교수 공저. 脾系內科學. 서울 : 한성기획. 2000 : 114.
3. 노석선. 原色眼耳鼻咽喉科學 서울 : 일중사. 1999 : 109, 114.
4. 허준. 東醫寶鑑. 서울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301.
5. 황정학원저. 정호영편저. 舍巖鍼灸正傳. 대구 : 석림출판사. 2001: 9, 10, 13, 18, 20, 28, 30, 49, 50, 51, 60, 61, 82, 86, 89, 90, 93, 94, 98, 102, 109, 110, 120, 123, 125, 130, 132, 142, 144, 157, 158, 168, 173, 182, 187, 197, 203, 215, 229, 242, 243, 264.